

한나라 경선 중재안 표 대결이나 타협이나

원칙 고수 강경론 속 물밑 협상 기류도

李-朴 주말 엇갈린 행보속 장외 신경전 내일 상임전국위원회 상정 여부 '분수령'

한나라당 강제집 대표가 대표직과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제시하며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타협을 촉구했으나 양측은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.

이제 따라 양측이 14일까지 극적인 타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로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 및 결과에 따른 중재안 회부 여부나 한나라당 내분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.

박 전 대표 캠프의 좌장격인 김부성의원은 이날 "강제집 대표의 중재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며 상정을 절대 지지할 생각"이라고 밝혔다.

그러나 박 전 대표 캠프 일각에서는 강 대표가 의원직 사퇴라는 강경론을 피력한 만큼 중재안 수용 여부에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.

중재안 수용 입장과 함께 대선 출마 기대

자화권을 가진 이명박 전 시장은 주말동안 광주를 방문, 대권 행보를 계속했다.

이 전 시장은 13일 당내 경선 규정 중재안 논란과 관련, "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공은 저쪽으로 (박 전 대표) 넘어갔다"며 "저쪽(박 전 대표 측)에서 들어오지 않겠나"라고 말하며 중재안 수용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다.

특히, 이 전 시장은 캠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재안 양보론에 대한 질문에 "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"라고 반문, 중재안과 관련, 박 전 대표 측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.

이같이 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14일 극적인 화해

의 드라마가 연출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이 전 시장은 중재안을 절충하는 성격의 협상안을 제시하면 박 전 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는 시나리오다. 이 경우 한나라당 내분이 일거에 해소되고 대선 정국을 한나라당 중심으로 구축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당과 후보들의 지지율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.

이들 반영하듯 이 전 시장 측 관계자는 "아직까지 중재안에 대한 또 다른 협상은 없다는 것이 이 전 시장의 입장"이라면서 "그러나 정치는 당장 한치 앞도 모르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"며 여지를 남겼다. 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

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서울시장 등이 13일 광주 국립 5·18 민주묘지에서 분향하고 있다. /니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“경부 운하보다 먼저 영산강 운하 착공”

주말·휴일 광주 찾은 이명박

한나라당 경선부를 둘러싼 내분이 극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 주말과 휴일 광주를 방문했다.

이 전 시장이 대선 출마 공식선언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광주를 선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. 당의 '전략적 불모지'이면서도 여론지지를 1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이 지역에서 지역화합을 강조하며 대권 경쟁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.

이 전 시장은 지난 12일 항공편으로 광주를 찾아 지역

문화·예술·연예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'문화행동'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, 오후에는 광주·전남 지역 당원들과 함께 무등산을 올랐다. 이날 점심 때는 농업 조합장단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.

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지역 언론사 사장들과의 만찬에서 광주·전남지역 현안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. 그는 자신의 대표적 선거 공약인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, "(집권하면) 운하사업은 반드시 한다. 그러나 정부 예산 없이 민자로 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"면서 "경부운하보다 영산강 운하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"고 밝혔다. 이 전 시장이 영

산강 운하사업을 경부운하보다 먼저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이 전 시장은 이어 "호남의 낙후된 SOC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'선(先) SOC 개발'을 원칙으로 하겠다"면서 "낙후지역의 수요 창출을 위해 SOC를 먼저 개발하는 것은 정지적 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"고 말했다. 이 전 시장은 특히 "최근 호남지역에 자주 오는 것은 SOC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일환"이라고 덧붙였다.

이 전 시장은 아울러 "호남지역에 올 때마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역정서가 예전같지는 않은 것으로 느꼈다"고 말했다.

이 전 시장은 이날 광주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13일 오전 망월동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광주 이씨 종친회에 참석한 뒤 상경했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김승연 회장 구속 수감후 첫 조사

경호원들 동원 '청계산 폭행' 시인 흥기 사용·조폭 동원 여전히 부인

차남 친구 '폭행 목격' 진술

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13일 김 회장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를 했으나 최피피프 등 흥기 사용 및 폭력조직 동원에 대해서는 또 다시 부인했다고 밝혔다.

11일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승연 회장은 대기실 총수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며 12일 아침 제공된 2천500원 짜리 미역국 아침 식사에 거의 입을 대지 않았으며 점심 때 나온 밥, 참치김치찌개와 미나리 무침, 무 각두기 등 사식은 거의 남기지 않았다.

김 회장은 또 입감된 직후 경찰에게 "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 가족을 포함해 누가 찾아오더라도 면회를 하지 않겠다"고 말했다.

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 동안 변호사가 임명한 가운데 진행된 조사에서 영장실질심사 때 시인한 대로 3월8일 경호원 등을 동원해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에서 폭행하고, 이들이 S클럽에서 종업원 윤모씨를 때린 혐의는 인정했다. 하지만 종업원들을 납치하도록 지시한 부분과 흥기 등 사용, 조폭개입

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.

경찰은 또 이날 오후 1시30분께 자진 출두한 김 회장 차남 친구 이모(22세)씨를 조사한 결과 "폭행 현장 3곳에 모두 갔으며 청계산 등에서 김 회장과 아들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"는 진술을 확보했다.

하지만 이씨는 김 회장이 흥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오후 5시50분께 귀가했다.

이씨는 김 회장 차남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사건이 벌어진 3월8일 김 회장 측과 피해자인 S클럽 종업원들을 제하고는 폭행 현장 3곳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3자로서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으나 지금까지 잠적해 있었다.

경찰은 범사범과 행동대장 오모씨와 G가 라오케 사장 장씨, D토건 김모 사장 등 3명이 사건 당일 김 회장 측으로 조직폭력배 등 수십 여명을 현장에 동원했다고 보고,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주피피자인 김 회장이 '직접 폭행하지 않았다'는 기존 진술을 반박함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을 일부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.

캐나다로 출국한 오씨와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. /연합뉴스

'건달 종업원' 보도자료 이어 "80억 합의금 요구" 주장 한화 '흠집내기 반격' 나섰다

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보복폭행 피해자들이 합의금으로 80억 원의 요구했다가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과 내용의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김 회장의 변호인은 12일 "폭행 사건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게 당연한데 피해자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80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"며 "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"고 말했다.

그는 "김 회장이 직접 그런 제안을 받지는 않지 않았겠나"며 "그런 요구를 한 건 S클럽 조 사장이다"라면서 "그것으로 안다"고 말해 피해자들에게 배수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.

하지만 조 사장 등 피해자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과 만나 "(폭행 사건 이후) 김 회장 측으로부터 협박이나 회유를 받은 적이 없었느냐"는 물음에 "다 피해 있었지 그 쪽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"며 합의설을 부정한 바 있다.

김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배수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. 하지만 조 사장 등 피해자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과 만나 "(폭행 사건 이후) 김 회장 측으로부터 협박이나 회유를 받은 적이 없었느냐"는 물음에 "다 피해 있었지 그 쪽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"며 합의설을 부정한 바 있다. /연합뉴스

요구설'을 제기한 것은 피해자들이 '순수한 피해자'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나아가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.

한화가 얼마 전 언론 배포용으로 작성한 '사건발단 전모'란 자료에서 피해자들이 '공포스런 건물'로 묘사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. 이런 점에서 '80억원설'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내내 수세적 입장에 있던 김 회장 측이 역습을 위해 내놓은 일종의 '히든 카드'인 셈이다.

역수는 좀 달랐지만 거액의 합의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.

경찰은 '80억원설'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. 실제로 피해자들이 80억 원의 요구했다가 합의금 요구받은 상황에서 액수를 제시한 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. /연합뉴스

하나투어 전문 판매점

하나투어

전국대표번호 **1588-1134**

상품예약 및 문의

(주)좋은우리들

상무지점 062) 464-8000 (세정아울렛 3층)

첨단지점 062) 973-9114 (첨단롯데마트 2층)

광산지점 062) 945-7500 (광산롯데마트 1층)

1등 여행사 새봄, 싱그러운 봄꽃처럼 고객님의 새로운 감동이 되겠습니다

광주출발상품

★광주·전남 여행사 연합상품입니다★

광주(→일본)
(큐슈·온천)

- 큐슈 온천 (부젠해) 5일 ₩439,000
- 큐슈 온천 (뉴카미야) 5일 ₩359,000~
- 큐슈 온천 (레쥘산) 4일 ₩559,000~

광주(→심양)
(백두산)

- 고구려문화 유적지 탐방 4일 ₩669,000 (금)
- 고구려 유적지, 백두산 5일 ₩789,000 (금)
- 백두산, 심양 4일 ₩699,000 (금)
- 백두산, 북경 5일 ₩839,000 (월)
- 백두산, 단둥, 심양 5일 ₩759,000 (월)

광주(→장사)
(장가계, 원가계)

- 장사, 장가계, 원가계 4일 ₩549,000 (수)
- 장사, 장가계, 원가계 5일 ₩599,000 (토)

광주(→상해)
(상해, 소주, 항주)

- 상해, 항주, 소주 (평화) 4일 ₩429,000 → ₩399,000 (수)
- 상해, 항주, 장가계, 원가계 (평화) 5일 ₩799,000 → ₩779,000 (매일)
- 상해, 계림, 소주 (평화) 4일 ₩779,000 → ₩759,000 (매일)
- 상해, 태국, 영국, 파타이 (평화) 5일 ₩799,000 → ₩779,000 (매일)

제주도 여행

- 왕복항공 패키지(3박4일) 159,000 → 129,000
- 제주도 2박3일 패키지(3박4일) 139,000 → 119,000
- 제주도 2박3일 패키지(3박4일) 139,000 → 119,000
- 제주도 2박3일 패키지(3박4일) 139,000 → 119,000

이제 여행전문가와 상의하세요!!

- 이재우 011-649-6362
- 서원주 011-602-9128
- 민경재 011-608-3456
- 김진일 011-608-0699

Europe ★100% 출발보장★

- 북유럽 유렵여행의 새로운 충격
- 서유럽 차안까지 오는 초특가 유럽
- 중유럽 화성 신비/로트랑/베르살레 11일 ₩2,490,000
- 중유럽 화성 신비/로트랑/베르살레 11일 ₩2,490,000
- 중유럽 화성 신비/로트랑/베르살레 11일 ₩2,490,000

동남아시아 전신용 NO TIP!

- 방콕/파타이 5/6일 ₩389,000
- 방콕/파타이 5/6일 ₩389,000
- 방콕/파타이 5/6일 ₩389,000
- 방콕/파타이 5/6일 ₩389,000

일본 NO TIP/NO VISA

- 도쿄/니고 5/6일 ₩799,000
- 도쿄/니고 5/6일 ₩799,000
- 도쿄/니고 5/6일 ₩799,000
- 도쿄/니고 5/6일 ₩799,000

남태평양 하나투어 현지직영

- 호주 뉴질랜드 남/북섬 완결 10-11일 ₩1,690,000~
- 호주 뉴질랜드 북섬 8일 ₩1,590,000~
- 호주 뉴질랜드 북섬 10일 ₩2,390,000~
- 호주 뉴질랜드 북섬 10일 ₩2,390,000~

미주 차별화된 서비스

- 미시부 부일주 7/8일 ₩1,190,000~1,690,000
- 미시부 태평양연안일주 8일 ₩1,490,000~1,590,000
- 미시부 태평양연안일주 8일 ₩1,490,000~1,590,000
- 미시부 태평양연안일주 8일 ₩1,490,000~1,590,000

●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의 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!